

† 회원사동정 †

LG전선(주)

데이터전송용 광케이블 개발

LG전선(대표 : 권문구)은 최근 경제성과 작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데이터전송 전용 광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데이터전송용 광케이블은 중계유선이나 CATV, 공장자동화, 인텔리전트빌딩 등에 사용하는 광케이블로 기존 광케이블에 비해 무게가 30% 정도 가볍고 케이블 지름도 20%나 줄었으므로 가공(架空)용은 물론 직매용이나 관로용으로 적합하다.

이 케이블은 또 튜브를 감싸고 있던 방수용 젤리(Jelly)를 없애 단말 작업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취급이 간편하고 접속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케이블 포설이 빠르고 쉬운 것이 특징이다.

LG전선은 또 이 케이블이 광섬유를 감싸고 있는 튜브가 케이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공정을 단순화 하여 제조원가도 20%나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LG전선은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데이터전송용 광케이블은 2코어(芯)부터 12코어까지 모두 6종류로 작년에 새로 준공한 구미의 인동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사 박의돈 팀장(광기술개발팀)은 "기존의 데이터전송용 광케이블은 광섬유가 비어 있는 5개의 공간을 다른 필러(Filler)로 채우고 작업을 어렵게 하는 등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LG전선의 데이터전송용 광케이블은 중앙에 배치한 광섬유 튜브를 한 개만 사용하면서 지지선은 양쪽에 배치함으로써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케이블의 안정도를 높여 단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주)

中國 발전설비 시장 진출

현대중공업(대표 : 金炯璧)이 중국의 발전설비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중국 상하이터빈사와 3백MW 화력발전소 스팀터빈용 블레이드 3천개를 제작, 1백만달러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터빈블레이드는 스팀이 통과되면서 터빈블레이드가 박혀 있는 로터축을 회전시켜 발전기에서 전기를 일으키게 하는 핵심부품이다. 이번 제품은 9월 말과 내년 8월말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하게 된다.

이번 터빈블레이드 공급계약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이전부터 상하이터빈사와 국제공동입찰을 하는 등 세계발전시장공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산전(주)

배선용 차단기, 우수 산업 디자인상 수상

LG産電(代表 : 李鍾秀)의 배선용 차단기(브랜드 명 : Meta-MEC 시리즈)가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KIDP) 주관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에 선정되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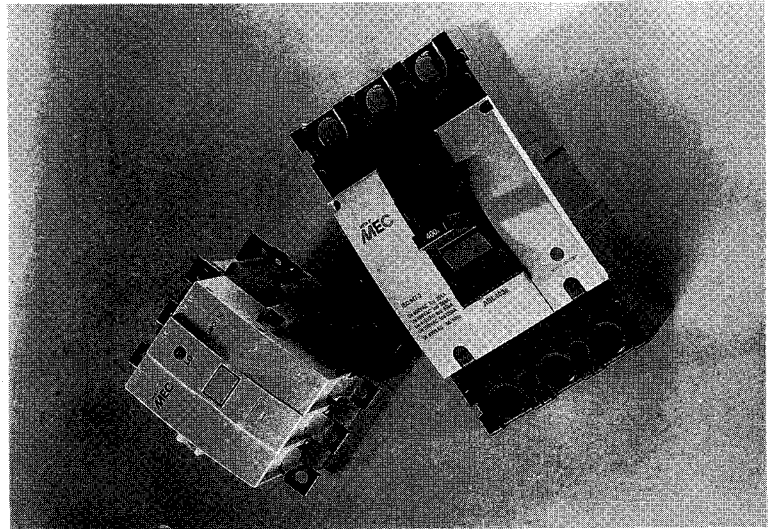
이번 우수 산업 디자인상 수상은 전력기기 제품으로는 업계 최초로 수상

한 것으로, 기존 전력기기의 어둡고 경직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밝고 안정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평가 받은 결과이다.

또한 이 제품은 유연하고 친근감 있는 형상 및 색상을 적용하였고, 모듈화와 소재 변경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한 심플하고 신뢰감 있는 디자인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우수 산업 디자인상은 산업 디자인 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1985년부터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며 상품의 외관이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선정, 정부가 디자인이 우수함을 인정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165개 업체로부터 346점의 제품이 출품되어 100개 업체의 179점이 GD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41점이 수상했다.

LG산전은 국내 산전 업계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디자인 분야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5년 국내 산전 업계에서는 최초로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용 제품 디자인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개의 제품이 GD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1개 제품이 특허청장 상을 수상함으로써 산전 업계 디자인 선도 업체



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LG산전은 러시아 승강기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LG산전은 최근 러시아 진출의 사전 조건인 승강기 품질·안전규격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러시아 국가인증기관인 국립승강기기술관리원(GOSGORTECHNADZOR, 고스고르테크나조르)이 자국에 수입되는 승강기類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일종의 수출허가서이다.

특히 러시아의 승강기 규격심사는 안전검사 위주의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품질검사도 주요 심사 기준이어서 공장심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LG산전도 지난 4월 초에 이미 창원공장에 대한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종은 LG산전의 주력 수출기종인 분속 210m급 인승/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초저소음·일체형 에스컬레이터로, LG산전은 영국의 BSI 인증과 유럽연합의 CE마크 획득에 이어 러시아 인증 획득으로 유럽 전역에 대한 수출 길을 열어 놓았다.

이와 함께 LG산전은 현지 영업 강화를 위해 6월 초에 모스크바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승강기 수주에 나서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현지 파견된 영업사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판매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LG산전은 진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건의 수주에 성공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총 500만불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승강기 시장은 연 8천대 규모로 매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시장이다. ▣